

이영표, UEFA컵 뚝다

24일 레버쿠젠과 원정 경기

왼쪽 수비로 선발 출전할 듯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2호 태극전사' 이영표(29·토트넘)가 유럽축구연맹(UEFA)컵에 복귀할 준비를 갖췄다.

이영표는 24일 오전 4시30분(이하 한국 시간)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열리는 2006~2007 UEFA컵 B조 조별리그 바이엘 레버쿠젠(독일)과 원정 경기에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전망이다.

지난 9월29일 UEFA컵 1라운드 2차전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전에 뚝 이후 56일만에 이 대회에 컴백하는 셈이다.

이영표는 지난 9일 칼링컵 8강 포츠베일전에서 복귀한 이후 세 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특히 지난 20일 프리미어리그 블랙번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킵 패스'로 마틴 올 토트넘 감독을 흡족하게 했다.

주전 경쟁 상대인 파스칼 심본다(프랑스)가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라 토트넘으로서는 이영표가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UEFA컵 조별리그에서 베시크타스(터키)와 클럽 브루게(벨기에)를 연파해 2연승을 달리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1무1패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

토트넘은 1971~1972년과 1983~1984년 시즌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의 불가리아 출신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레버쿠젠 출신으로 친정팀과 맞대결이다.

이영표에게 이번 원정 경기를 치를 장소는 특별한 곳이다. 레버쿠젠의 홈 구장 바이아레나는 닥 아드보카트 전 대표팀 감독이 독일월드컵축구 본선을 치르러 독일에 입성한 이후 태극호의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경기장이다.

이영표는 이 곳에서 동료 태극전사와 더불어 '끝나지 않은 신화'를 위해 월드컵의 꿈을 키웠다. 거의 5개월만에 다시 밟을 그라운드에서 이영표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리그 챔피언 먹고 K-리그로 올라 가자

고양-김포, 오늘 내셔널리그 챔프 1차전

'내셔널리그 챔피언의 이름으로 K-리그에 올라가자.'

실업축구 고양 국민은행과 김포 할렐루야가 내년 시즌 K-리그에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을 잡기 위해 STC 2006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승전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격돌한다.

두 팀은 '홀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2일과 26일 열리는 챔피언 결정 1, 2차전을 통해 올해 내셔널리그 통합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전기 1위 고양은 22일 오후 2시 적자인 김

포종합운동장에서 후기 1위 김포와 1차전을 벌인다.

2006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4강에 올랐지만 수원 삼성의 벽에 막혀 좌절한 고양은 두터운 선수층을 앞세워 기선을 잡겠다는 기세다.

고양은 대부분이 프로 경험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된 데다 FA컵에서 프로 3개팀(울산, 광주, 경남)을 잇따라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킨 팀이다.

“내년 세계청소년축구 한국 개최 준비 완벽”

잭 워너 FIFA부회장

2007년 17세 이하(U-17)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인 잭 워너 위원장이 한국의 대회 준비 과정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내년 세계청소년대회 개최 도시 후보지 점검을 위해 2차로 방한한 워너 위원장은 21일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호텔에서 서울 호텔에서 가진 실사 결과 총평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사는 성공적이었다”면서 “몇 개의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워너 위원장은 이어 “버스 준비나 숙박 시설, 선수들의 경기장 이동 등 모든 준비 과정이 일정대로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나키 알바레스 대회 조직위 사무

총장은 이번 실사를 마친 뒤 “광양과 전안, 창원, 서귀포, 서울 수도권, 수원, 울산 등 개최 후보 도시를 7개로 좁혔다”면서 “이 가운데 4개 도시는 경기장 내 시설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내년 3월1일 까지 보완할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개막전은 수원, 결승전은 고양에서 개최하는 것은 권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FIFA 실사단은 지난 17일 방한해 5박 6일간 대회 개최 후보지인 울산과 광양, 창원, 전안, 수원 등 5개 시의 경기장을 돌아보았으며 2007년 3월1일 이후 6개 개최도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2007년 제12회 대회는 8월18일부터 9월9일까지 23일간 한국 6개 도시에서 열린다.



호주 '수영 영웅' 이안 소프 은퇴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 다섯 개를 따낸 호주의 수영 영웅 이안 소프(24)가 은퇴를 선언했다.

21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프는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영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선수로서 수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는 “잊그려 내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 하지만 내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22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5차전(셀틱-맨체스터Utd)(07:00·MBC ESPN)

▲그랜드슬램골프(09:00·MBC ESPN)

▲농구대잔치(단국대-고려대)(13:20·SBS스포츠)

▲제61회 전국대학 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1(12:00·KBSN SPORTS), 준결승2(14:00·KBSN SPORTS)

▲N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14:05·KBS 1)

▲FIVB 세계 남자배구 선수권(프랑스-쿠

바)(15:50·Xports), <한국-러시아>(17:50·Xports)

▲프로농구(SK-LG)(18:50·SBS스포츠)

23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5차전(스모스 크바-바이에른 뮌헨)(02:30·MBC ESPN)

한국, 중국·호주와 A조

여자청소년 축구 조추첨

한국이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16세 이하(U-16) 아시아 여자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중국, 호주와 한 조에 속했다.

21일(한국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에서 열린 대회 본선 조추첨 결과 한국은 중국, 호주와 A조에 편성됐다.

B조에는 지난 대회 챔피언 일본을 비롯한 북한, 태국이 들어갔다. 2007 아시아여자청소년(U-16)선수권대회는 내년 3월7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

한편 개최국 및 대회 일정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2007 19세 이하 아시아여자청소년 선수권대회 조추첨에서는 한국이 중국, 대만, 태국과 B조에 포함됐다.

기시 **채비** **강의!!**

25037년 4월15일 11월 25일, 12월 27일, 1월 19일

11월 25일(토) 14:00~17:00

485명 참석자

기술사 신뢰성

광주건축토목학원

062-512-5400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무릎관절, 오목, 비만, 관절염, 어깨통증, 팔다리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힘이 켜는 분, 국내특허 획득, 로열티 없는 저렴한 가격, 탁월한 흡수력과 내구성

스토포츠화 147,000원

개쥬업(신사화) 197,000원

박은중 국제스포츠 1호

Tel. (062) 653-7572

9급 공무원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채용시험대비**

12월 1일 합격률 최고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m

062-222-5105

자영업자 전문대결

필수 사항 가능하신분

· 식당·유동·서비스업·문명지

자동차 전문대결

모든차량 가능 (자차·합부·기합차)

· 수입차·고급차 전문

· 24시간 상담 및 배차임무

부동산 담보대결

· 아파트·빌라·상가·주택

· 나머지 논·밭·임야·음향

· 은행·광고 대출 후 2~3년 추가 대출

주)신세계투자금융

대부업등록번호 서구 132호

☎(062)431-3130